제57회 백제문화제 사진공모전

- '백제문화제 어제 그리고 오늘' 주제로 10월 10일까지 접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석원)는 '제57회 백제문화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백제문화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조하고, 축제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진공모전은 '백제문화제 어제와 그리고 오늘'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백제문화제가 담긴 추억의 사진(어제) 및 축제 방문 기념사진(오늘) 등이 대상이며,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백제문화제 축제 행사장이 배경으로 담기거나 백제문화재(문화유산)와 찍은 사진으로, 백제문화제 과거 포스터 및 백제관련 사진을 포함해 백제문화제와 함께 한 추억과 사연이 담긴 의미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응모방법은 온라인(600만 화소, 파일크기 5MB 이하) 및 우편(사진 크기 제한 없음)으로 접수하며, 촬영 일시와 장소, 100자 내외의 사진과 얽힌 추억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주소는 공주시 금성동 191-2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홍보과, 이메일 주소는 baekje1@hanmail.net이다.

우수상 1명(100만원), 장려상 4명(각각 50만원), 입선 50명(각각 10만원) 등 총 55명의 수상작은 10월 20일 백제문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작품들은 제57회 백제문화제 화보집에 수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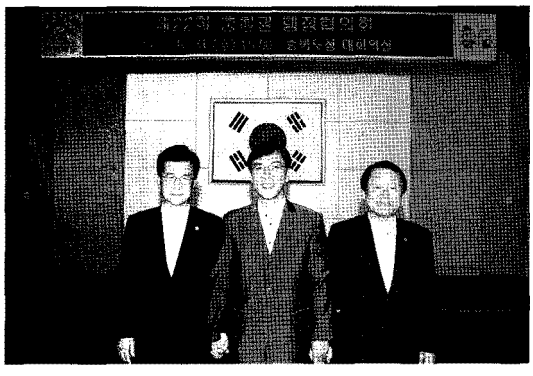
충청권 3개 시·도지사 상생 발전위해 뭉쳤다

- 12개항 협의…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상생발전 추진, 세종시 성공출범과 정착지원 등

8월 31일 충북도청에서 충남, 충북, 대전 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협의안건 설명 및 협의 ▲공동결의문 서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3개 시·도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상생발전방안 추진 ▲세종시 성공출범과 정착지원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건립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충주~원주간 복선전철 신설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충청권 행정협의



회 운영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대한 협의와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참여 · 홍보 등 3개 협조안건 등 12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3개 시 · 도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5개항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3개 시 · 도에서는 ▲충청권이 공조하여 유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대전시 참여추진 및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지원을 위해 충청권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 인프라인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해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충청권 철도 조기 건설, 충주~원주간 복선 전철 신설,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충청권 지역 SOC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하고 충청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충청권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충청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11 충주무술 축제 및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012 세계 조리사 대회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여와 홍보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업 발전 '밑그림' 완성…11개 분야 347개 시책 추진

– '3농 혁신' 4년간 4조3천억 투입

충남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3농(농어업小燦組復농어업인) 혁신'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올해부터 4년간 11개 분야 347개 시책(신규 76개, 기존 271개)에 총 4조3천9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충남도정무부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충청남도 농어업 · 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는 '농어업인 · 소비자 ·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 농어촌 사회'를 농어업 · 농어촌 혁신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충남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도시와 순환 ·

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등을 〈3대 목표〉로, ▲친환경 · 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마련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①친환경 고품질 농업 분야에는 ▲무농약 이상 작물 재배 면적 확대(2011년 1.7% 2014년 7%) ▲유기 가공식품 인증업체 육성(32 62개) ▲친환경 벼 재배단지 750ha 조성 고품질 벼 품종 전환, 또 610개교에 학교농장을 조성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6개소 입차 ▲유기농채소 전문단지 20개소 조성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4개소 조성 등 '친환경 고품질 농업' 부문 62개 시책에 1조2천 36억원을 투입한다.

② '선진 축산업' 부문은 77개 과제에 4천502억원이 투입된다.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농장 300개소 만들기에 45억원을 투자하며, ▲밀폐식 축사 45곳을 개방식 군사(群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 · 축협 유통판매 시설 16개소 ▲가축방역 이동식 소독시설 1만대 지원 ▲양계농가 계분 고속건조기 지원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등도 선진 축산업 부분에 포함됐다.

③ '산림자원 육성 · 활용' 부문은 ▲희망 산촌 만들기와 ▲가치 산림자원 육성 등 27개 과제에 6천107억원을,

④ '청정 수산' 분야는 61개 과제에 4천363억원을 투입한다. 청정 수산 분야에서는 특히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과 ▲갯벌 참굴 양식 육성 ▲김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첨단 고밀도 새우 양식 등의 특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해삼 특화단지는 181ha에서 375ha로 확대키로 했다.

⑤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2천252억원을 투입해 ▲농민장터 16개소 운영 ▲학교급식 지원센터 4개소 설치 ▲학교 텃밭 조성 ▲식생활 네트워크 구축 등 31개 시책을,

⑥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분야는 1조424억원을 들여 충남형 마을 만들기 등 20개 시책을 추진한다.

⑦ '농어업 6차 산업화' 분야는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 ▲우리동네 농장 육성 등 31개 시책에 1천454억원,

⑧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분야는 2개 시책 2억9천만원,

⑨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분야는 26개 시책 1천544억원,

지역리더 양성 분야는 ▲연간 280명의 지역리더 육성 ▲강소농 육성 등 8개 시책 82억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2개 시책에 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과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자연재해 등 우리 농어업 · 농어촌이 직면한 각종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 · 장기적인 종합 발전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 국내외 농어업 환경 변화에 따라 이 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정 · 보완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30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어업인과 유관기관 · 단체 관계자 등 350명이 참

석한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혁신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과거 기반 시설 조성 등 사업 위주(하드 파워)에서 주민 역량 강화(소프트 파워) 등을 강조했으며,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협력 강화를, 대외경쟁력 강화에서 지역연대 강화로, 외생적 발전에서 내발적 발전 등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30개 (예비)사회적기업 226명 신규 채용 인력 지원

- 제2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7억원 지원

충남도는 8월 24일 소회의실에서 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구본충 행정부지사)를 열고 201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3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226명의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2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1년 제1차 지원 : 13개 기업, 7억 8천만원(65명)).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10인 이내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대 2년간(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인증시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프로보노 연계 지원 및 제품 구매 홍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자립경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9월초까지 시군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후 승인을 거쳐 인건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041-251-2668) 또는 소재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인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마케팅사업 하반기 확대 지원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업체당 2개 지역까지 확대, 참가비 60% 지원
- 해외 시장조사 및 바이어 찾기 사업…업체당→150만원 200만원 확대

올해 상반기 충남의 수출은 중동사태와 일본 대대진 등 교육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세계경제는 세계교역 신장세 확대로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는 반면 환율 및 세계증시 하락, 유가상승 등 세계경제

여건 변화로 하반기 수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충남도가 하반기 수출확대 및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해외시장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해외전담 영업 인력이 부족해 해외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에 해외지사화 사업과 해외시장조사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KOTRA 해외비즈니스센터(KBC)가 참가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조사부터 거래선 발굴부터 수출성약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활동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업당 1개 KBC에서 2개 KBC로 확대하는 등 지사화 사업 참가비용의 60%를 지원한다.

해외 시장조사 지원사업은 기업이 수출과 관련하여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지역의 바이어 및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를 KOTRA 해외비즈니스센터에 조사를 의뢰하여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종류에는 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찾기 등 3가지 항목에 대하여 1개 기업당 1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최대 200만원까지 해외시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대상은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수출기업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연중수시 충남도 국제통상과(☎(042) 251-2173, 팩스 (042)251-2179)에 우편 또는 팩스, 메일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별 신청서, 품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이며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로 문의 하거나,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산업경제→수출기업지원소식 란을 참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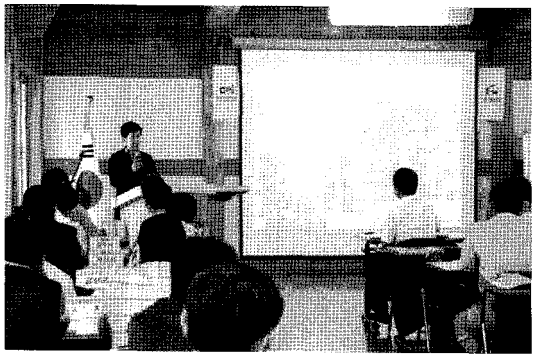
상권활성화제도와 사회적기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모색

– 순환과 공생의 자연친화적 전통시장 만들기 세미나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상권 잠식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권활성화제도와 사회적기업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전통시장연구회(회장 권영현, 충발연 문화디자인연구부장)와 충청남도는 8월 31일 공주한옥마을에서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진 "순환과 공생의 자연친화적 전통시장 만들기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충남 전통시장의 경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약2천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상권활성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통시장 활



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도입된 상권활성화제도의 적용과 사회적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지역민이 중심이 된 지역상권 만들기를 강조했다.

실제 전국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4곳의 사회적기업 중 2곳이 충남에 있다.

임 박사는 "특히 온양전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온양전통시장은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15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유유자적 카페' 등 상인 주도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연대구조를 형성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최근 시행된 상권활성화제도에 따른 상권활성화기구의 사회적기업화를 적극 활용하면 전통시장 사회적기업의 성공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진흥원 노화봉 박사는 "창업 후 1년 내 폐업하는 약 7만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부담하는 피해, 즉 창업 실패의 직접비용이 약 4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공통적인 인프라는 지원조직, 기술개발지원, 혁신지원, 정보제공, 유통망 확충, 사업영역 보호, 지원의 전달체계 등 다양한 소상공인의 개별적 대응과 경쟁력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만큼, 환경 변화에 따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깊도 있는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체성과 운영상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의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그 이용률도 적다."고 지적하면서 "상권활성화기구 등 상인조직을 중심으로 홍보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문화디자인연구부장은 일본 상점가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 스스로의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인간력)와 역량"이라면서 "이와 함께 전통시장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멋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와 충남지역상인연합회, 국토연구원, 시장경영진흥원, 충발연 연구진,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